

開化期新聞小說 「적선여경녹」에 대한 考察

曾 天 富*

目 次

I. 序 論	IV. 「적선여경녹」의 出現
II. 源泉作品의 檢討	原因과 時代의 背景
III. 「적선여경녹」의 翻譯樣相	V. 「적선여경녹」의 동일내용의 他翻譯本 考察
1. 詩·詞의 省略	1. 〈啖蔗〉 소재 「劉弘敬傳」
2. 文章의 縮約과 內容의 省略	2. 高大 筆寫本 「금고기관 유원보전」
3. 文句의 添加	3. 新舊書林 刊 〈諺漢文 今古奇觀〉
4. 內容의 改變	
	VI. 結 論

I. 序 論

開化期는 신문 매체에 의한 소설의 대중화 현상이 양적으로 팽창되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新聞을 통해 발표된 小説은 이른바 開化思想을 담고 있는 新小說類와 내용과 형식면에서 舊小說의 要素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작품이 並存하고 있었다.

開化期小說의 성격 규정은 외래문화의 영향아래 이루어졌다는 것과 전래

* 東國大學校 慶州分校 中語中文學科 教授

소설의 전통성 계승이란 측면에서의 논의로 집약할 수 있는데 이 時期의 新聞連載小說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舊小說의 要素의 小說을 자세히 살펴보면 中國 明清話本小說과의 聯關性을 발견할 수 있다. 李憲洪교수는 1906년 皇城新聞에 連載된 「神斷公案」 제1, 2, 3회가 낙선재본 한글 翻譯小說 〈包公演義〉 중의 내용과 같다¹⁾고 밝혔으며 필자 역시 석사논문에서 앞의 「神斷公案」 중 제5회가 明代擬話本小說 「西山觀設籙度亡魂 開封府備棺追活命」의 번안작이며 그의 1906년 大韓每日申報에 연재된 「靑樓義女傳」과 1909년 純 한글판 大韓每日申報에 연재된 「報應」이 각각 中國 明代擬話本小說 「杜十娘怒沈百寶箱」, 「呂大郎還金完骨肉」의 번안작임²⁾을 밝힌 바 있다. 그 이후 孫秉國의 박사논문³⁾에서도 「神斷公案」 5회, 「報應」, 「龍舍玉」, 「昭陽亭」 등 開化期新聞小說에 대한 中國話本과의 관련을 살핀 바 있다.

本稿에서 살피려는 「적전여경록」 역시 1905년 8월 11일부터 같은 해 8월 29일까지 大韓每日申報에 연재된 開化期新聞小說로 작자 무서명의 한글 소설이며 金重河교수의 소개⁴⁾의 별다른 연구가 없었다. 소설 시작 전에 “野乘”이라 써여 있는데 혹 이런 용어로 인해 연구가들의 주의를 끌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필자는 이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拍案驚奇〉 卷20, 〈今古奇觀〉 卷18의 「李克讓竟達空函 劉元雙生貴子」와 그 내용이 일치함을 발견하였다.

- 1) 李憲洪, 朝鮮朝訟事小說研究(釜山大 博士學位論文, 1987. 2) p. 72.
- 2) 曾天富, 韓國小說의 明代擬話本小說 受容의 一考察(釜山大 碩士論文, 1988. 2)
- 3) 孫秉國, 韓國古典小說에 미친 明代話本小說의 影響(東國大 博士論文, 1990. 8) 이 중 「神斷公案」 5회, 「報應」 등에 대한 明代話本과의 영향 관계는 앞서 말한 필자의 논문에서 이미 밝혀진 것으로서, 孫秉國님의 논문은 논리 전개로 보아 필자의 논문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다. 그리고 「玉堂春落難逢夫」와 비교한 「龍舍玉」은 1906년 大韓日報에 30회에 걸쳐 연재된 懸吐漢文小說인데 이는 1회에서 22회까지 한국의 古小說인 「王慶龍傳」과 文句運用上 몇몇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일치하며 단지 23회에서 30회까지 여주인공의 얼굴부분이 첨가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그 母本인 「王慶龍傳」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직접 중국 화본소설과 비교한 것이다. 역시 「新小說의 受容樣相」 항목에서 「玉堂春落難逢夫」의 번안작이라 한 「碧芙蓉」은 「龍舍玉」과 같은 예로 「王慶龍傳」을 母本으로 쓰여진 작품인데 이를 무시하고 직접 中國小說의 齣案이라 결론내리고 있다. (「王慶龍傳」에 대해서는 필자의 앞 논문을 참고) 또한 明代擬話本小說 「陳御史巧勘金鈔銀」의 번안작이라고 한 李海朝의 작품 「昭陽亭」은 그 플롯의 진행과 등장인물의 행동유형상 상당한 거리가 발견되며, 따라서 「昭陽亭」은 「陳御史巧勘金鈔銀」의 번안작이라 함은 견강부회라고 생각된다.
- 4) 金重河, 開化期小說研究(Ⅰ), 부산대 논문집 17집, 1978, 12, pp. 8-9.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연대미상의 漢文小說集〈啖蔗〉속의〈劉弘敬傳〉과 高麗大圖書館 소장 연대미상의 한글 筆寫本〈금고괴관「유원보전」〉 그리고 1918년 新舊書林에서 간행한〈諺漢文 今古奇觀〉 제10회「유원보쌍생귀자」와도 동일한 내용이다.

本稿에서는 우선「적선여경녹」이 중국화본소설의 번역본임을 확인, 그 번역양상과 출현배경을 살피고 다음으로 타 번역본과의 비교, 그리고 각각의 번역본 간의 영향수수 관계와 아울러 번역본들의 원천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源泉作品的 檢討

「적선여경녹」의 원천작품은 中國擬話本小說〈拍案驚奇〉卷20의「李克讓敬達空函 劉元普雙生貴子」와〈今古奇觀〉卷18의「劉元普雙生貴子」이다. 원래 이 이야기의 원천은〈拍案驚奇〉卷20의 正文 말미에 있는 작자의 말로써 알 수 있는데 작자는「空緘記」를 話本으로 부연 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空緘記」는 明代 王元壽의 작이며 같은 이야기가 唐代〈太平廣記〉卷117(陰德錄) 劉弘敬條에 처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후에〈古今類事〉卷19 및〈國色天香〉卷5에도 실려 있으며 희곡으로는 작자미상의「施仁義劉弘嫁婢」란 雜劇이 元代에 개작되었는데〈孤本元明雜劇〉에 이 작품이 실려 있다.⁵⁾

〈今古奇觀〉은 三言·二拍的 200편 중에서 精髓만을 40편 가려뽑은 것으로 三言二拍과 근본적으로 같은 작품이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편도 다소 발견된다. 차이의 대부분은 三言二拍的 誤字 수정이고 그의 표현상 다른 文句를 사용했거나, 삽입된 詩詞에서도 글자 차이가 보이며 어떤 편은 내용에서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警世通言〉卷5「呂大郎還金完骨肉」과〈今古奇觀〉卷31의「呂大郎還金完骨肉」을 비교해 보면 전자에는 三兄弟 중 둘째 呂寶의 性行이 불선하다 했으나 그 처 楊氏는 마음이 선량하여 동서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今古奇觀〉에서는 呂寶 부부를 똑같이 악인으로 그리고 있으며 때문에 展開되는 줄거리에 상당한

5) 譚正璧의 話本與古劇(上海古籍出版社, 1985 重訂本), 譚嘉定的 三言兩拍資料(維明書局, 1983, 臺灣版)과 胡士瑩의 話本小說概論(丹青圖書, 1983 臺灣版) 등 참조.

差異를 드러내고 있다. 그 밖에 回目中 있어서 三言에서는 七言單句, 二拍에서는 七言 對句, <今古奇觀>에는 모두 七言單句로 되어 있다.

여기서 「적선여경록」의 母本이 <拍案驚奇>와 <今古奇觀> 중 어느 本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內容上 두 本은 차이가 없고 文句上 표현이 다른 곳이 몇몇 발견되지만 모본을 가릴 만큼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단지 같은 開化期新聞 連載小說인 「神斷公案」 5회가 <今古奇觀>에는 없고 <拍案驚奇>에 실려 있어 <拍案驚奇>의 韓國流入을 말해주는 한 단서로 볼 수 있기는 하지만 <今古奇觀>은 한국에 수입되어 상당한 세력을 확보하였고 開化期 이후까지도 초역본이 활판본으로 간행될 정도로 유행하였으므로 작자가 <拍案驚奇> 보다는 <今古奇觀>을 모본으로 번역하였으리란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今古奇觀>을 주 자료로 <拍案驚奇>를 보조 자료로 삼고자 한다.

III. 「적선여경록」의 翻譯樣相

우선 「적선여경록」의 내용을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宋眞宗때 西京 洛陽 땅에 자를 元普라 하는 劉弘敬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青州刺史를 지내다가 60세가 되어 고향에 돌아와 산다. 그에게는 자식이 없어 內姪 王文用이 재산을 관리하고 부인 왕씨와 선행에 힘쓴다.

어느날 淸明節을 당해 선영에 다니오다가 道士를 만나 積善하면 多壽多福 多男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더욱 적선을 배운다.

변경 땅에 李滌이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錢塘縣尹을 제수 받은 지 한 달도 못되어 우연히 득병,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彥靑(은청)과 부인 張氏에게 서신 한 통을 남기고 유원보를 찾아가서 의탁하라 한다.

元普가 받아보니 백지 뿐이었으나 그 뜻을 헤아려 張氏母子를 극진히 보살핀다. 어느날 원보가 彥靑의 의젓한 모습에 아들 없음을 한탄하자 부인 王氏는 側室 둘 것을 권하고 몰래 매파에게 才色兼備한 여자를 구하라 한다.

한편 변경 開封府에 사는 裴翹이라는 사람은 여식인 蘭孫小姐를 데리고 襄陽刺史로 부임하는데 죄인에게 온정을 베풀다가 죄인들의 도망으로 벌을 받아 옥에 갇혀 죽게 된다. 난손소저는 자신의 몸을 팔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다가 마침 왕씨가 보낸 매파를 만나 장례를 치러주는 대신 측실이 되기로 약조하나, 劉元普는 蘭孫小姐를 李滌의 아들 彥靑과 혼인시킨다.

그후 유원보의 꿈에 이손과 배습이 나타나 그 은혜에 사래하고 자신들이 하늘에 上奏하여 수명을 연장시켰으며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손의 妻 張氏가

날을 유복녀 鳳鳴을 며느리로 삼아 달라고 한다. 이후 왕씨부인이 큰 아들 天佑를 낳고, 하녀 朝雲(종운)에게서 次男 天錫을 얻는다.

李彥靑은 과거에 급제, 벼슬길에 오르고 여동생 鳳鳴과 남손소저의 외삼촌 鄭樞密의 딸 素娟은 각각 天佑·天錫과 혼인하여 자손이 번창한다.

劉元普는 나이 80이 되어 명이 다하고 그의 집안은 대대로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以上에서 볼 수 있듯이 「적선여경록」은 그 내용이 敎訓의이며 小説構成의 원리상 갈등구조가 거의 없고 주인공 劉元普의 善行으로 일관된 단순한 줄거리 전개를 보이고 있다. 原本 〈今古奇觀〉 卷18 「劉元普雙生貴子」에 있는 2개의 入話가 없어진 것 외에 줄거리는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나 생각된 부분이 많고 事件 전달만을 위주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 樣相은 크게 아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詩·詞의 省略

원본에는 총 15首의 詩·詞가 있는데 詩는 작자가 앞으로의, 혹은 이미 설명한 내용을 총괄하거나 소감을 피력할 때 그리고 민간의 가요 등으로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되었고 詞는 어떤 登場人物의 눈을 통해 다른 人物의 모습을 묘사할 때 주로 쓰고 있다.

中國의 話本類 小説에서 이런 詩·詞의 介入은 대단히 보편적이며 그 역할은 대체로 등장인물의 환경이나 복장·용모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주요한 행동을 논평하며, 散文으로서는 서술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충하여 강한 예술적 여운을 남기는 데 있다. 또한 화본소설의 '說話'(口演) 특징으로, 단락을 구분 짓기도 하는데 이런 전통이 清代 擬話本小説에 까지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적선여경록」에서는 첫 七言詩의 12句 中 7句만이 번역되었고 나머지 5句와 이후 나오는 14首의 詩·詞는 완전히 생략하였다. 이는 번역상의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한국의 소설 전통에는 詩나 詞로써 상황을 묘사하고 비평하는 예가 더물고, 특히 漢文小説이 아니라 개화기 新聞連載小説이란 時代의 특성 때문에 생략하지 않았는가 한다.

2. 文章의 縮約과 內容의 省略

「적선여경록」은 2회까지는 거의 완역의 형태를 취하다가 점점 많은 부분을 축약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장의 축약은 가장 많이 보이는 번역형태이다. 이는 주인공 劉元普 위주로 이야기를 전개시킨 까닭에 그 밖의 인물에 대해서는 아예 그 내용을 빼버리거나 줄거리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간단하게 줄인 결과로 인한 것인데, 축약된 부분 몇 군데를 예를 들면,

이손이 錢塘縣의 縣尹이 되는 과정을 말하는 가운데

“本是西粵人氏 只爲與京師竄遠 十分 孤貧 不便赴試 數年前挈妻攜子 流寓京師 却喜中了新科進士 除授錢塘縣尹”⁶⁾

이라 한 것을 「적선여경록」에는

“이극양이 고빈환 가세로 일시 영쪽러미 처자를 잇글고 전당현의 임하여”⁷⁾

로 간단히 말하고 있으며, 王氏부인이 유원보에게 裴小姐와 혼인하라고 부탁하는 장면에서도,

“一日王夫人又對元普說道 那裴氏女雖然貴家出身 却是落難之中 得相公救拔他的 若是流落他方 不知如何下賤去了 相公又與他擇地葬親 此恩非小 他必甘心與相公爲妾의 既是名門之女 或者有些福氣 誕育子嗣 也不見得 若得如此 非但相公有後 他也 終身有靠 未爲不可 望相公思之”⁸⁾

라 하여 배소저가 이곳에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으면 어찌 되었겠으며 또한 측실이 되는 것이 배소저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장황하게 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일은 왕부인니 자사의게 엇조오되 세식니 임의 맞거 잇스니 비씨 여자를 복일 생친 허심을 청허나니다”⁹⁾

라고 하여 한마디로 말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극양이 죽으면서 그 아내와 아들 彥靑에게 부탁하는 말이나 裴小姐의 혼인장면등이 원문보다 훨씬 간단히

6) 全圖 今古奇觀, 抱甕老人輯, 中國書店影印(北京) 1988. 권4. p. 23.

7) 적선여경록, 대한매일신보, 1905. 8. 12.

8) 今古奇觀, 앞의 책, 권4, p. 28.

9) 적선여경록, 앞의 신문, 1905. 8. 20.

기술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원문에 있는 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는 것 또한 「적선여경록」의 번역양상 중 두드러지는 것으로, 짧은 귀절이 번역 안된 경우와 사전이나 상황묘사 중 상당부분이 완전히 빠져버린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역자가 불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며, 이로 인해 전체 이야기에 영향을 미친 점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역자가 의도적으로 빼버린 경우는 事件爲主의 전개 방식에서 온 결과로 보인다.

예를 들면 夫人이 매파에게 側室을 구해 달라 부탁하는 장면에서 翻譯文에는 다음과 같이 내용의 일부가 빠져 있다.

“夫人這番却立意要與丈夫娶妾 曉得與他商量 定然推阻 便私下叫家人喚將作媒的薛婆來 說知就裏 又囑付道 直待事成之後 方可與老爺得知 必用心訪個德容兼備的 或者老爺才肯相愛 薛婆一一應諾而去 過不多日 薛婆尋了幾個來說 領與夫人觀看 沒一個中意 薛婆道 此間女子 只好怎樣 除非汴梁帝京五方會聚去處 才有出色女子 喜得王文用有別事要進京 夫人把白金密託與他 央薛婆同去尋覓 薛婆也有一頭媒事要進京 兩得其便 不在話下”¹⁰⁾

라 하여 王文用이 京師에 가는 길에 媒婆도 함께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선여경록」에는

“왕부인이 정혼 뜻이 이 비긋은지라 당하여 즐기하는 설파를 불러 사언을 이르고 머공 겸비한 여자를 방구한디 설파 과도히 응낙하고 가니라”¹¹⁾

이라고만 되어 있다. 그의吉日이 되어 배습과 이손의 영구를 안장하는 내용 등이 역문에는 모두 빠져 있다.

3. 文句의 添加

「적선여경록」에는 原文 중에 없거나 간단히 서술된 부분에 비교적 짧은 구절을 덧붙여 내용을 좀더 강하고 명확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다. 주인공 유원보의 적선 행위를 말하는 가운데

10) 今古奇觀, 앞의 책, 권4, p. 24.

11) 적선여경록, 앞의 신문, 1905. 8. 13.

12) 今古奇觀, 앞의 책, 권4, p. 22.

8 韓國文學論叢 第12輯

“自己只是在家中廣行善事 仗義疏財 揮金如土 從前至後 已不知濟過多少人了”¹³⁾

라 한 것은 「적선여경록」에는

“자기는 착한 일을 널리 힘써 의를 집어 죄물에 소환하여 취금여토하니
종전으로 지금까지 궁교빈족외에 낙난곤궁한 사람을 구제 전환할지 무일무지
하기로...”¹³⁾ (가점필자)

라 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또 선조의 성묘길에 자식없음을 통탄
하다가 부인 왕씨의 만류에

“劉元普見說 只得勉強收淚”¹⁴⁾

라 한 것을 「적선여경록」에는

“비탄함을 마지 아니하다가 강잉하여 눈물을 거두고...”¹⁵⁾(가점필자)

라 되어 있다. 그리고 유원보가 나이 70에 자식을 얻어 유모가 下女 朝雲(중
운)에게 잠시 맡기고 잠안에 갔다 온 사이 아이가 울었기 때문에 朝雲(중운)
과 말다툼하는 장면에서

“只見跌起老大一箇疙瘩 便大怒發話道...”¹⁶⁾

라 한 것을 번역문에는

“유피 살펴보니 공주는 그쳐 울기를 곳치지 아니하고 머리가 밤톨만치 부룻
던논지라. 유모가 더경터로 하여 손을 들어 중운의 뺨을 치며 웃지져 왈...”¹⁷⁾
(가점필자)

이라 되어 있다. 이 밖에도 원문에는 없는 내용으로 유원보의 두 아들이 각기
몇세 때에 스승을 모셨으며 몇세에 등과했고 혼인하여 몇남 몇녀를 두었다는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

13) 적선여경록, 앞의 신문, 1905. 8. 11.
14) 今古奇觀, 앞의 책, 권4, p. 22.
15) 적선여경록, 앞의 신문, 1905. 8. 11.
16) 今古奇觀, 앞의 책, 권4, p. 30.
17) 적선여경록, 앞의 신문, 1905. 8. 25.

4. 內容의 改變

翻譯作品中 內容上의 差異가 있는 부분은 작자의 意圖 與否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적선여경록」에 나타난 內容의 改變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작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작자가 內容을 간단히 하기 위하여 줄거리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사소한 일의 순서나 상황들을 바꾼 경우이다. 前者의 경우로는 李克讓이 죽은 후 장씨부인과 彦靑이 아버지의 편지를 가지고 劉元普를 찾는 과정에서 원문에는

“却說劉元普一日正在書齋間玩古典 只見門上人報道 外有母子二人口稱西粵人氏 是老爺至交親戚 有書拜謁 元普心下著疑 想到 我那裡來這樣遠親 便且教請進 母子二人走到眼前 施禮已畢 元普道 老夫與賢母子在何處識面 實有遺忘 伏乞詳示”¹⁸⁾

라고 하여 문지기가 張氏母子에 대해 먼저 물어보고 알려주며 유원보가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선여경록」에는

“각설 류자시 하로는 서적에 안져 고서를 보더니 홀연 보미 먼길에 품을 적지 효최남루현 모조 두사툼이 드러와 복디 비올하여 서신을 올니거늘”¹⁹⁾

라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 역자가 의도적으로 內容을 줄이기 위해 바꾼 것을 보면, 王夫人이 보낸 媒婆와 裴小姐가 원래 알고 있는 사이였으나 「적선여경록」에는 裴小姐가 어려움에 처해, 마침 側室을 구하는 媒婆를 만나며 서로 모르는 사이로 나온다.

“却說蘭孫哀切切含羞忍辱 來在街上賣身 只見一個老媽媽走近而來 欠身施禮問道 小娘子爲著甚事賣身 又恁般愁容可掬 蘭孫未及回答 那媽媽把他仔細看了一眼 有些認識 吃了一驚道 這不是裴小姐 如何到此地位 原來那媽媽就是洛陽的薛婆 鄭夫人在時 薛婆有事到京 常在裴家往來的 故此認得 蘭孫擡頭見是薛婆 就同他走到一個僻靜所在 含淚把上項事說了一遍 那婆子家最易眼淚出的 聽到傷心之處 不覺也哭起來”²⁰⁾

18) 今古奇觀, 앞의 책, 권4, p. 23.

19) 적선여경록, 앞의 신문, 1905. 8. 12.

20) 今古奇觀, 앞의 책, 권4, p. 26.

라 하여 媒婆가 裴小姐의 어머니와 익히 알고 있었으며 자주 집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적선여경록」에는

“문득 한 로파 나아와 사연을 못거날 비소져 사정을 일일이 고소하디 노파!
또한 눈물을 흘리고 위로허며…”²¹⁾

라고만 되어 있다.

IV. 「적선여경록」의 出現原因과 時代的 背景

「적선여경록」은 開化期 新聞에 게재된 連載小說이기는 하나 舊小說의 要素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우선 ‘~록(錄)’이라 한 標題에서부터 舊小說의 類型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으며 文體面에서 ‘각설’ ‘차설’ 등의 話頭辭가 장면 전환 때마다 어김없이 登場하고, 終結語尾가 ‘…하더라, …지어다, …소이다’ 型으로 되어 있으며 ‘…왈’ 型의 대화 유도어와 ‘오호애재’(嗚乎哀哉), ‘어수지락’(魚水之樂) 등 구소설의 상투어가 남아 있고, 內容面에서도 우연의 남발과 평면적 構成, 作品 末尾에 작가가 “옛말에 일오되 적선지가에 필유여 경이라 하니 세상 사람은 이 류자스의 일을 감홀 지어다”라고 하여 독자에게 소설의 主題를 직접적으로 주입시키는 작자 개입이 이루어져 있다는 등등의 구소설적 요소의 殘影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1900년대초 近代文物이 수입되던 시기에 어째서 이와 같은 구소설적 작품이 新聞에 연재될 수 있었을까?

우선 「적선여경록」의 翻譯樣相을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기본적인 줄거리에서 완전히 일치를 보이고 있어 翻譯의 형태를 취하긴 하였지만 축약된 부분이 많고 의도적으로 생략한 곳도 더러 있어 完譯이라고 볼 수는 없다. 原文 「李克讓竟達空函, 劉元善雙生貴子」에서는 유원보를 중심으로 이손과 배습의 人品, 그리고 彥靑의 婚姻과 며솔생활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描寫가 이루어져 있는데 「적선여경록」은 유원보 이외의 人物에 대해서는 줄거리 전개에 필수적인 事件만을 간단히 한 두 마디로 압축하여 敘述하였을 뿐 他人物에 대한

21) 적선여경록, 앞의 신문, 1905. 8. 15.

설명은 거의 모두를 생략하였고 중복되는 부분을 빼버렸는데 이는 題目에서 보여주듯이 中國小說이李克讓과 劉元普의 이야기를 거의 대등하게 다루고 있는데 비해 「적선여경록」에서는 유원보의 선행과 그 결과 얻게 되는 행복된 결말을 강력하게 드러내고자 한 작자의 의도를 反映하는 것이며 이는 開化期小說이 보여주는 構成의 簡潔性과도 상통된 면을 찾을 수 있겠다.

그리고 제2회까지는 거의 完譯의 형태를 취하였으나 뒷부분으로 갈수록 생략한 부분이 늘어나다가 오히려 결말부분에서는 유원보의 두 아들 天佑, 天錫의 성장과정과 혼인, 벼슬에 나아가는 내용이 원문보다 더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 역자의 의도를 짐작케 해준다. 그 밖에 양국의 문화적 차이에서 온 의도적인 내용의 생략도 보이는데 원문에서는 裴小姐의 어머니 鄭氏夫人이 평소 清真觀에 다녔으며 그 곳 사람들과 교분을 두터이 하였고 이로 인해 죄수탈옥 사건으로 배습이 죄를 입어 上京하는 도중에 清真觀의 女道士에게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된다는 내용이 나온다. 청진관은 道教의 수련장으로 한국의 풍속과는 거리가 멀다. 때문에 「적선여경록」에는 이런 내용이 모두 빠져 버린 것이 아닌가 한다. 그외 등장인물의 나이, 이름 등에서 사소한 차이를 보이거나 전체 내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적선여경록」은 그 내용이 教訓的이며 주인공 유원보의 선행으로 일관된 단순한 줄거리 전개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내용의 중국소설이 번역되었다는 것은 開化期 啓蒙思想 表출의 한 단면이 아닌가 생각한다. 더구나 中國小說의 번역, 번안작이 이 시기에 광범하게 유행하였으며 이들 작품이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다면 이런 추측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의 文學背景, 다시 말하면 開化思想과 傳統保守의 분위기가 혼재하던 시기에 후자의 사상을 강력하게 표현하고자 했던 역자를 상상할 수 있으며 이들 소설이 전통편향의 독자를 기반으로 개화사상을 담은 소설이 유행하기 직전까지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V. 「적선여경녹」과 동일내용의 他翻譯本 考察

1. 〈啖蔗〉 소재 「劉弘敬傳」

〈啖蔗〉는 作者·年代未詳의 筆寫本 漢文小說集으로 서울 中央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乾」·「坤」으로 命名된 두 권이며 「乾」책에는 15편 「坤」책에는 13편, 모두 28편의 이야기를 싣고 있다. 그런데 「坤」책의 제13편은 전후 兩段의 내용이 다른 殘文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29편이라 할 수 있다.

필자의 소개의 韓國에서 「啖蔗」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없는 것 같고 台北에서 그 來源에 대한 見解가 엇갈리고 있다. 필자는 〈답자〉의 작자가 三言·二拍과 「今古奇觀」을 동시에 참고하여 改寫한 것이라고 생각한다.²¹⁾

〈啖蔗〉는 原작의 白話文을 文言文으로 옮겼기 때문에 통상 이런 경우에 있을 수 있는 文體의 간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새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時代背景이 바뀌어졌거나 다르게 기술되어 있으며 文句의 差異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적선여경녹」과 同一內容인 「劉弘敬傳」은 〈啖蔗〉 29편중 7번째 이야기인데 「弘劉敬傳」 역시 원문보다 전반적으로 간단히 改寫되었고 내용이 빠진 부분도 발견된다. 그 중 한 예를 들면, 原文에는 劉元普가 蘭孫小姐와 李彥青을 혼인시킨 후 먼저 옮겨온 李遜과 裴翺의 영구를 택일하여 안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劉弘敬傳」에는 이런 장면이 모두 빠져 있다.

다음으로 〈啖蔗〉의 年代는 알려져 있지 않아 「적선여경녹」과의 선후, 영향 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啖蔗〉가 朝鮮時代 文人의 漢文文言體 筆致로 쓰여진 점을 보아 「적선여경녹」보다 時代上으로 앞선 것으로 판단되며, 譯文 자체를 분석해 보면 「적선여경녹」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첫째, 「적선여경녹」에는 原文의 첫 詩 12句중 7句의 번역이 있는데 〈啖蔗〉에는 모두 없고, 둘째, 그 내용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데 그 중 하나만 예를 들면, 같은 대목에서 〈今古奇觀〉에는

“學生年近古稀 死亦非妖 子嗣之事 至此暮年 亦是水中撈月了 但學生自想生平 雖無大德 濟弱扶危 存心已久 不知如何罪業 遂至殄絕祖宗之祀”²²⁾

22) 〈啖蔗〉에 대해서는 필자의 앞 논문(pp. 15~29)를 참조.

23) 今古奇觀, 앞의 책, 권4, p. 22.

라 한 것을 〈啖蔗〉「劉弘敬傳」에는

“學生年近古稀 死亦非夭 但至暮景 子嗣之事 便若水中撈月 敢請指教”²⁴⁾

「적선여경녹」에는

“학성이 나히 회염에 죽어도 요흡이 아니오 사속의 바름도 저문나해 또한 물속에 달을 건지려홍과 갓흔지다. 학성이 스스로 생각전디 심령에 비록 큰 덕은 업스나 계근부위 학기를 존심홀 즈 이피 오리되 아지 못게라. 여하호 죄업으로 조종의 봉사가 진멸 학기에 이르노잇가”²⁵⁾

라 되어 있어 원문의 내용이 「적선여경녹」에는 충실히 번역된 데 비해 「劉弘敬傳」에는 뒷부분이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적선여경녹」이 〈啖蔗〉를 母本으로 번역했을 가능성은 없다 하겠다.

2. 高大 筆寫本 「금고서관 유원보전」

高麗大學校 圖書館本 〈금고서관〉은 한글 필사본으로 1책 53장이다. 그 안에 「금고서관 송금전」, 「금고서관 장주전」, 「금고서관 유원보전」, 「금고서관 주익신전」 등 네 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 「今古奇觀」 소재의 작품을 번역한 것이다.²⁶⁾

原文과 이 本의 차이는 우선, 번역 형태에서 完譯의 형태를 취하진 못했으나 「적선여경녹」에서 유원보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를 간단히 서술한 것과는 달리 각 登場人物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서술을 보이고 있다. 가령 「적선여경녹」에는李克讓이나裴習의 출세와 인품 행적등이 모두 생략되었는데 반해 高大 筆寫本에는 이들에 대한 소개가 원문과 거의 동일하게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원문에 나오는 15首의 詩·詞는 완전히 생략하였고 언어 구조상 해석이 곤란한 부분도 생략된 곳이 많다. 그리고 「적선여경녹」과는 달리 文句의 添加나 內容의 改變은 없고 다만 기본 줄거리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

24) 〈啖蔗〉「劉弘敬傳」, 서울 中央圖書館所藏, 筆寫本 p. 44.

25) 「적선여경녹」, 앞의 신문, 1905. 8. 12.

26) 「주매신전」에 대해서 申東一의 박사논문(韓國古典小說에 미친 明代短篇小說의 영향, 서울대. 1985)에서는 〈今古奇觀〉의 작품이 아니고 〈漢書〉卷64上에 있는 朱買臣傳을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孫秉國은 앞의 논문에서 〈今古奇觀〉 소재 「金玉奴棒打薄情郎」의 入話를 번역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에서 간략화 하거나 몇 구절씩 번역하지 않은 정도이다.

다음으로 〈啖蔗〉 속의 「劉弘敬傳」과 이 本의 관계를 보면 우선 이 本에 실려 있는 네편 중 「금고괴관 주리신전」이 〈啖蔗〉 29편 중에는 없으며, 내용에서 유원보가 裴小姐와 李彦靑을 결혼시킨 뒤 이들의 부친 영구를 모셔다가 후에 안장하는 내용이 「劉弘敬傳」에는 없는 데 비해 이 본에는 모두 그대로 번역되어 있다. 이로써 高大 筆寫本 「금고괴관 유원보전」은 〈啖蔗〉나 「적선여경녹」과는 상관이 없고 이 세 本이 각기 원문 「劉元普雙生貴子」에서 직접 번역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 新舊書林 刊 〈諺漢文 今古奇觀〉

〈언한문 금고괴관〉은 1918년 신구서림에서 펴낸 活字本으로 모두 10편의 작품을 번역, 수록하고 있다. 이 중 9편은 〈今古奇觀〉 소재의 작품이며 1편은 한국의 문헌 실화집에 있는 이야기를 번역한 것인데 그 내용이 모두 孝·義를 위주로 한 것이다.

10화로 실려있는 「劉元普雙生貴子」는 연대가 가장 늦은 것으로 앞서 본 세 본과는 달리 完譯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우선 앞서 살펴본 세 본에 일부 혹은 모두 생략되어 있는 詩나 詞가 全部는 아니나 다수 나오고 있으며 줄거리나 내용의 세밀한 부분까지 일치하고 있어 마치 원본을 옆에 두고 한 글자씩 直譯해 나간 듯한 느낌을 준다. 앞의 세 본과 비교해서 보면, 원보가 선산에 갔다오는 길에 한 道士를 만나는 장면에서 그 도사가 든 패에 ‘風鑑通神’이란 글귀가 쓰여 있는데 〈啖蔗〉에는 그대로, 高大 筆寫本과 「적선여경녹」에는 모두 한글로 ‘풍감통신’이라고 쓴 것에 비해 여기에는 ‘거울궂치 보고 귀신궂치 안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으며, 특이한 것은 詩의 번역에서 순서가 바뀐 것인데, 원문에서 入話전에 나오는 「全婚昔日稱裴相, 助殯千秋慕范君, 慷慨奇人難屢見, 休將仗義望朝紳」의 詩句를 “전혼 석일에 증비상하니 강기괴인 난마전이라 조빈천츄 모범군하니 휴장장의 망조신혹라”라고 번역하고 있다.

또 역자가 백화문에 착오를 일으켜 잘못 번역한 글자도 몇 군데 보인다. 원보가 성묘길에 만나는 도사가 손에 패를 잡고 있다는 귀절이 있는데 원문

에서 ‘手執招牌’라 한 것을 여기서는 ‘손에 부르는 떡을 잡고’라고 誤譯되어 있고 유원보의 장남 天佑의 탄생과정에서 원문에 ‘不上半個時辰’이라 되어 있는데 이를 ‘상오 진시에’라고 잘못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착오를 극히 짧은 기절에 한해서 찾아볼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앞서 살핀 세 본보다 상세하고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다.

따라서 〈啖蔗〉의 「劉弘敬傳」, 필사본 「금고괴관 유원보전」, 「적선여경녹」과 비교해 볼 때, 우선 이 본이 完譯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데 비해 다른 본들은 앞서 말한대로 생략된 부분이 다소 발견되고 있으며 그 文句의 표현 등을 대조해 보면 이 諺漢文本은 이들 본을 모본으로 번역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하겠다.

VI. 結 論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화기 신문소설 「적선여경녹」은 〈拍案驚奇〉 卷20과 〈今古奇觀〉 卷18의 「劉元普雙生貴子」의 번역작품으로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명칭이나 성격, 주제 등에서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

둘째, 두드러지는 번역의 양상은 축역이라는 점인데 詩·詞의 생략, 문장의 축약 내지는 내용의 부분적인 생략, 문귀의 첨가, 내용상의 개변 등으로 나누어 번역임을 확인하고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

셋째, 「적선여경녹」은 개화기 신문연재소설이지만 구조설적 요소를 그대로 간직한 작품으로 이 시기에 중국소설이 번안, 번역작이 유행한 것과 연관지어 보면, 전통 보수의 성향을 띤 역자에 의해 교훈을 목적으로 씌어졌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적선여경녹」과 동일 내용인 〈啖蔗〉의 「劉弘敬傳」, 高大 筆寫本 「금고괴관 유원보전」, 신구서림판 〈諺漢文今古奇觀〉 제10회 「유원보쌍생귀자」는 각각 中國小説 「劉元普雙生貴子」에서 직접 改寫, 또는 翻譯된 것이며 이들 본간의 영향수수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